



정교회 주보



성 알렉산드라 왕비

사순절 제 5주일

성 마리아 이집트 수녀

성 아타나시아 수녀원장

제 4조, 조과복음 1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제 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주일 입당송 / 14, A 42

•성 마리아 이집트 수녀 찬양송/비고정 축일 성가집 51

•성당 찬양송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사도경 : 히브리 9:11~14 / 234, 봉독서 457

•복음경 : 마르코 10:32~45 / 141, B 99

•성모송(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62, A 171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알렉산드라 왕비

우리 교회에서 4월 19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는 알렉산드라 왕비는 박해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아내였습니다. 감정이 폭력적이고 가혹했던 황제와 달리 왕비는 평온한 마음과 사랑과 자선활동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녀는 크게 깨달았고, 게오르기오스 성인의 순교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운과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알렉산드라 왕비가 자기 아이들의 어머니였음에도 왕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순교에 이르게 합니다. 알

렉산드라 왕비는 성 게오르기오스 대순교자의 순교와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 참 하느님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황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참 하느님 앞에서 질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왕비는 같은 신앙인이었던 자신의 세 시종 아폴로스, 이사키오스, 코르다토스와 함께 순교하였습니다. 알렉산드라 왕비는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2~3세기)

"회개"는 하나님의 큰 은총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세속적으로 깊이 빠져 믿음이 잘못되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어렵게 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기가 힘들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삶의 시작은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부터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적 삶을 살지 못해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세속적인 삶에 찌들어 영적인 삶을 거부했다가도 어떤 계기로 인해 정신을 차리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한다. “회개”는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그것은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다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갖고 돌아와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하여 유혹을 받고 있지만,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마음 가운데 평화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다. 그 평화의 길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았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죄를 인식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 보지만, 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절망

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면 그 길을 찾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죄인임을 의식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 회개는 단순히 삶에 있어 일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일생을 통하여 반복된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한 고행의 길이며 우리는 일생을 이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위험한 상태가 거듭되기 때문이다.

회개라는 단어는 <생각을 바꿈>, <사고의 변화>의 뜻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시 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

과거는 물론 오늘날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불신이 가중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회개가 없기에 거짓과 위선만이 기승을 부리고 진리를 곡해하며 기만하고 있다. 깨끗한 세상이 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룩될 수 있다. 이집트 수녀 마리아 성인이 보이신 회개의 모습을 백 분의 일이라도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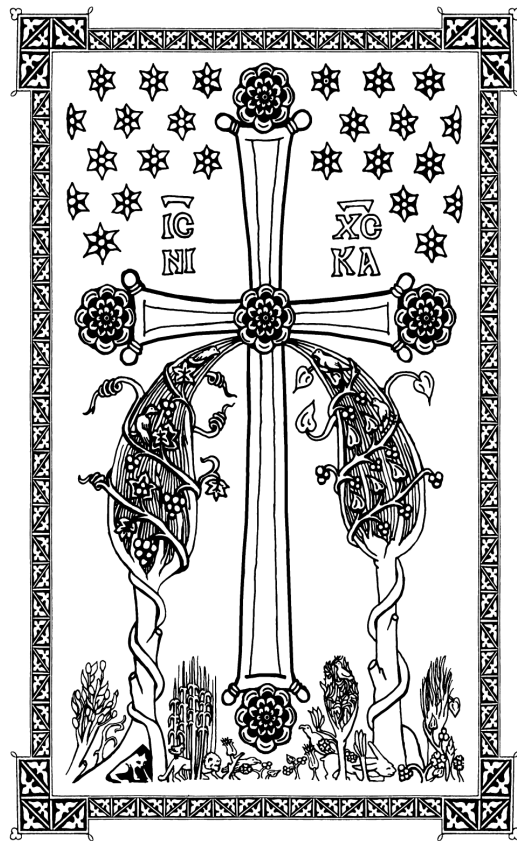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우리 안에 있는 정글



아프리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民譚)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처녀림 같은 정글 속 나무들을 잘라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은 처음으로 햇빛을 볼 수 있게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낮선 짝이 돌아나더니, 다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꽃들과 새로운 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



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아름답고 섬세한 식물들이 그곳에서 자라날 수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낱아빠진 죄와 악습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허용하며,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마치 햇빛이 들지 않는 정글처럼 되도록 방치합니다.

또 때로는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리는 굽고, 몸은 휘청거립니다. 책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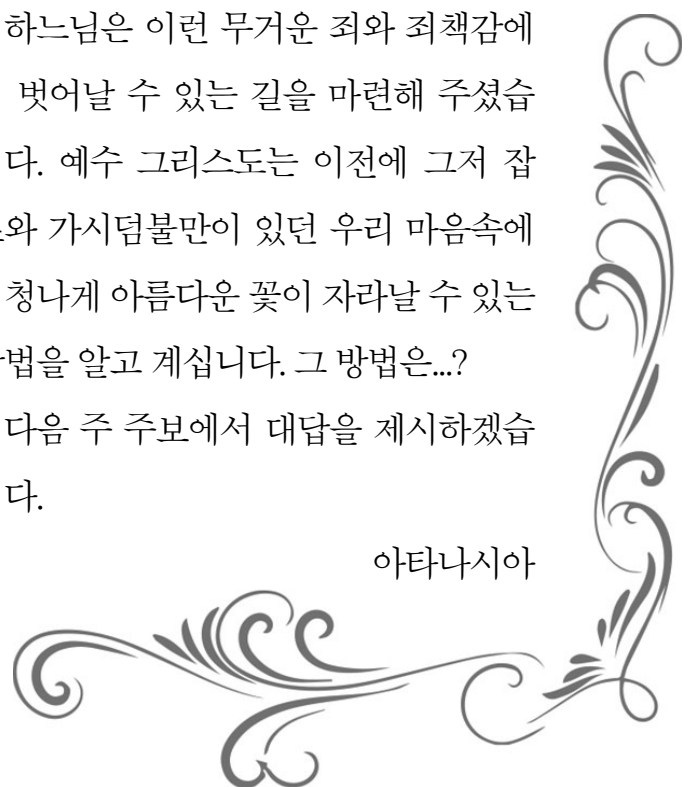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등이 우주와 그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날마다 우리의 등 뒤로 실어 나르며,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잠어지고 있는 과도한 짐에 더해서 이런 새로운 것들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에 억눌린 삶을 변화시

키지 않고 어떻게 하루하루, 또는 한 해 또 한 해 이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이런 무거운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그저 잡초와 가시덤불만이 있던 우리 마음속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다음 주 주보에서 대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아타나시아



성대주간 및 부활절 예식 시간표

4월25일 성지주일	오전 8:45 - 조과 및 요한 크리스소스톰 성찬예배 오후 1:00 - 신랑의 예식
4월26일 성 대 월요일	오후 6:00 - 신랑의 예식
4월27일 성 대 화요일	오전 9:00 - 미리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 신랑의 예식
4월28일 성 대 수요일	오전 9:00 - 미리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 성유성사
4월29일 성 대 목요일	오전 9:00 - 대만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6:00 - 주님의 거룩한 고난예식(12복음 봉독)
4월30일 성 대 금요일	오전 9:00 - 대시과(1, 3, 6 시과) 오후 3:00 - 9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식 오후 6:00 - 에빠따피오스 예식
5월1일 성 대 토요일	오전 9:00 - 대만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8:00 - 부활절 예식 및 성 요한 크리스소스톰 성찬예배
5월2일 부활주일	오전 11:00 - 사랑의 대만과

대교구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성 대주간과 부활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성당에서는 성당 사무실에 예배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교구

■ 대시순절 기간 예배 유튜브 생중계

코로나19로 인해 대시순절 주중 예배, 화, 목요일 오후 5시 석후대과, 수요일 오후 5시 미리축성된 성찬예배를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이 번 주 중에는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두 번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 예배 안내

서울 성당에서는 올 해 부활절 예배를 코로나19로 신자분들께서 모두 참여가 어려워서 세 번에 걸쳐 드리려고 합니다. 5월 1일 ①저녁 7-9시, ②저녁 9:30-11:30, ③밤 12-2시(슬라브어 사용 교인만 참석)에서 신자분들의 신청여부에 따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4월 24일 토요일까지 신자분들께서는 어느 시간에 참석하실 것인지 꼭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 달걀,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장식 봉헌을 신청받습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성당 재건축 봉헌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성모안식 성당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공되기까지 아직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당 하느님의 도움과 성모님의 중보로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간예식

- 화, 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21일(수), 23일(금)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24일(토) 라자로 부활토요일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